

20대 여성의 미용행태별 건강위해 실태조사

신명자

대전보건대 피부미용과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오늘날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소득과 소비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구 소득의 향상은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대는 다매체 시대로 신문, 도서, 잡지, 방송, 영화, 통신은 많은 사람의 의사 결정이나, 신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영경, 1997).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이나 미혼 세대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특히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다. 그 중에서도 또래 집단과의 교류가 빈번하며, 곧 취업을 해야 하거나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나이의 20대 여성은 이성교제가 빈번하여 더욱 용모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런데, 각종 매체의 영향과 사회적 흐름의 영향으로 많은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얼굴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고,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 하는 경향이 있다(정지아,

1999). 또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여성의 비만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나쳐 표준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만하다고 생각하여 지나친 체중조절을 감행하고 그 결과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신지영, 1998). 그리고, 화장과 피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피부관리를 잘못하거나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피부질환 즉 화장독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43.3%로 조사 연구된 바 있다(김복희, 1998). 헤어관리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미용성형의 유행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기타 미용 행위 중에도 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연구자료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은 많은 우리 국민이 유행이나, 광고, 대중매체의 영향, 상업적인 권유,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건강 위해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거나, 아직은 법적, 행정적 규제가 불분명한 미용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건강과의 관련이 검증되지 않은 미용

제품이나, 방법을 쓰거나, 심지어는 의학적 지식 없이 약물을 바르거나 복용하기도 한다(신학철, 1999). 또, 병원이나 한의원, 단식원, 체형관리실을 다니며 과도한 미용행위와 지출을 하기도 하며, 헤어나 피부 관리 업소의 위생 상태 불량이나, 건강 지식의 부족으로 건강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사회적 책임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국민건강을 선도해야 할 전문가의 상업성과 개인 이익 추구로,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것이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으로 미용 산업은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일반 미용업계(헤어 미용실, 피부관리실, 체형관리실, 화장품 업계)와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단식원, 약국까지 가세한 상업적 이윤 추구의 과열과 과잉 홍보가 건강상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생활방식과 영양 상태의 변화,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변화는 피부와 체형, 체질에 많은 영향을 미쳐 건강문제와 동시에 미용상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김기연, 1997). 따라서 미용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교정하거나 관리하려는 대상의 숫자가 많고,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것에 비하여 관련 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지출의 증가, 관련 사업의 증대가 유행 현상처럼 과도한 우리의 현상으로 볼 때, 각종 미용 행위의 시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건강상 위해 여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여성 중 미용 활동이 비교적 빈번한 집단인 서울의 일부 여대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현재 하고 있는 화장, 피부관리, 체중·체형 관리, 헤어 관리, 미용성형의 미용 행

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건강위해 실태와 관련 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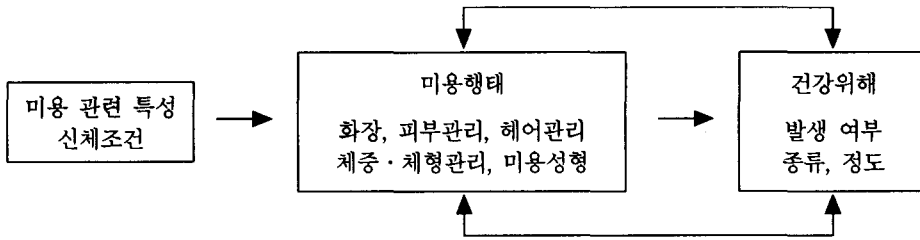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A 여자 대학교와 B 남녀공학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학년구분 없이 각각 450명씩 총 90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2000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2000년 9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3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과 보완을 통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89이었다.

연구자료는 각 대학의 학생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조사원을 선정하고, 연구의 취지, 조사의 목적, 조사내용 및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방법 등을 교육하여 조사자의 개인차를 최소화 한 후 조사대상 대학의 캠퍼스 내의 여대생을 임의로 선정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900부 중 834부로 회수율은 92.7% 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한 813부(90.3%)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설문지 구성내용

조사항목	내 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나이, 학교, 계열, 현재 건강 상태, 가족의 경제수준, 한달 미용 지출 비용, 미용정보 입수경로	7
신체조건	신장과 체중, 얼굴·피부·체형·체중에 대한 만족도	2
화장	화장유무, 화장 안 하는 이유, 화장정도, 사용 화장품	6
피부관리	관리 유무,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시행 장소와 횟수	5
체중·체형	관리유무, 관리이유, 안 하는 이유,방법, 횟수	5
헤어관리	관리 유무; 안 하는 이유, 시행 방법, 횟수, 관리 시 일반적 문제	5
미용성형	시행유무, 안 하는 이유, 시행 방법,종류,부위, 성형 후 문제	6
건강위해	화장 후 건강상 문제, 피부관리 후 건강상 문제, 체중, 체형관리 후 건강상 문제, 헤어관리 후 건강상 문제, 미용성형 후 건강상 문제	10
보건교육	미용에 대한 보건교육 여부, 내용, 필요성	3
	계	49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가 국내외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사전 기초 조사와 면담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조사된 자료는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부호화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적용한 통계방법은 백분율, 두 변수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고, 두 변수의 평균치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일부 20대 여성의 화장·피부관

리·헤어관리·체중관리·미용성형 행태 및 그에 따른 건강위해 실태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미용행태로 인한 건강위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용행태 별로 건강위해 수준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건강위해 수준은 가려움이나 발적과 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미한 증상을 포함하고 증상이 심하여서 장기적, 영구적, 전신적인 모든 건강위해를 합쳐 '건강위해 I'로 정의하였고, 장기간이거나 영구적, 전신적인 건강위해로 건강 문제로 주목해야 할 위해를 '건강위해 II'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미용과 관련된 특성

응답자는 총 813명으로 미용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9.6%(76명), 중 85.3%(674명), 하 5.1%(40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

이 중간정도의 경제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자각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는 94.2%가 자신이 보통 이상으로 건강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한달 평균 지출하는 미용비용은 만원미만 13.5%(109명), 만원~3만원 31.2%(252명), 3만원~5만원 25.3%(204명), 5만원~10만원 16.4%(132명), 10만원~20만원 9.5%(77명) 그리고 기타 4.1%(33명)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미용 지출비용의 범위가 10배

<표 2> 조사대상자의 미용관련 특성

특성	범주	남녀공학	여대	전체	명(%)
가정의 경제수준	상	42 (10.4)	34 (8.8)	76 (9.6)	
	중	336 (83.6)	338 (87.1)	674 (85.3)	
	하	24 (6.0)	16 (4.1)	40 (5.1)	
	계	410 (50.4)	403 (49.6)	813 (100.0)	
	$\chi^2=2.201$				
자각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36 (8.8)	35 (8.7)	71 (8.7)	
	좋다	215 (52.4)	222 (55.1)	437 (53.8)	
	보통이다	137 (33.4)	121 (30.0)	258 (31.7)	
	나쁘다	22 (5.4)	24 (6.0)	46 (5.7)	
	매우 나쁘다	-	1 (0.2)	1 (0.1)	
$\chi^2=2.145$					
월미용비용	1만원 미만	55 (13.5)	54 (13.5)	109 (13.5)	
	1만~3만원 미만	117 (28.7)	135 (33.8)	252 (31.2)	
	3만~5만원 미만	123 (30.2)	81 (20.3)	204 (25.3)	
	5만~10만원미만	63 (15.5)	69 (17.3)	132 (16.4)	
	10~20만원	32 (7.9)	45 (11.3)	77 (9.5)	
	기타	17 (4.2)	16 (4.0)	33 (4.1)	
$\chi^2=12.030^*$					
정보의 출처	대중매체	239 (58.3)	234 (58.1)	473 (58.2)	
	인터넷	39 (9.5)	70 (17.4)	109 (13.4)	
	가족, 친구, 친지	222 (54.1)	242 (60.0)	464 (57.1)	
	미용전문가	29 (7.1)	30 (7.4)	59 (7.3)	
	책, 강의	8 (2.0)	12 (3.0)	20 (2.5)	
기타	11 (2.7)	9 (2.2)	20 (2.5)		
(복수응답)	$\chi^2=8.117$				

* P<.05

이상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미용에 관한 정보의 원천은 대중매체나 가족, 친지, 친구가 미용정보의 주요 원천임을 나타냈다.

2. 미용 행태

조사대상자의 미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화장의 유무, 피부관리의 유무, 체중·체형 관리 유무, 헤어관리 유무, 미용성형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결과 미용행태는 화장을 하는 사람이 78.6%, 피부관리가 49.5%, 체중·체형관리가 32.0%, 헤어관리가 81.5%, 미용성형이 14.9%였다. 화장($\chi^2=9.215$, $P < .01$)과 헤어관리($\chi^2=4.435$, $P < .05$)를 남녀공학에서 여대에 비해 많이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3. 미용행태별 건강위해 실태와 관련 요인

1) 미용행태별 건강위해

건강위해에 대한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각각의 미용행태로 인하여 나타난 건강 위해에서 일시적 부작용까지를 포함하면 화장 후 67.4%, 피부관리 후 34.8%, 체중·체형 관리 후 53.1%, 헤어관리 후 53.1%, 미용 성형 후 1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미용 분야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보면 헤어 관리, 화장, 피부 관리에 의한 부작용이나 건강 위해 사례가 기존 연구에 의해서도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 임상이나 주변 사례에서는 건강위해라고 우려할만한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할 때 분석 방법을

<표 3> 미용양상 및 실태

특성	구분	명(%)		
		남녀공학	여대	전체
얼굴화장	유	340 (82.9)	299 (74.2)	639 (78.6)
	무	70 (17.1)	104 (25.8)	174 (21.4)
	$\chi^2=9.215^{**}$			
피부관리	유	208 (50.3)	194 (48.1)	402 (49.5)
	무	201 (49.1)	209 (65.8)	410 (50.5)
	$\chi^2=0.599$			
체중·체형 관리	유	112 (29.8)	138 (34.2)	260 (32.0)
	무	288 (70.9)	265 (65.8)	553 (68.0)
	$\chi^2=3.649$			
헤어관리	유	346 (84.4)	317 (78.7)	663 (81.5)
	무	64 (15.6)	86 (21.3)	150 (18.5)
	$\chi^2=4.435^*$			
미용성형	유	55 (13.4)	66 (16.4)	121 (14.9)
	무	355 (51.3)	337 (83.6)	692 (85.1)
	$\chi^2=1.408$			

* $P < .05$ ** $P < .01$

2분화 하였다. 즉 건강위해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하고자, 일시적인 부작용을 건강위해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제외한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간과 위해 범위에 대한 4가지 범주를 모두 사용한 건강 위해 I의 영역(일시적, 오랜 기간, 전신적, 영구적)에서 건강 위해 정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화장 후 건강위해 67.4%는 김복희의 연구(1998)에서 나타난 43.3% 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나타난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건강 위해 정도가 아주 적은 것은 구분하고자,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것, 전신적 손상이 온 것만을 합쳐 건강 위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류하여 건강 위해 II 영역으로 분리하여 연구를 하니, 그 비율은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즉 화장 후 건강 위해 8.3%, 피부 관리 후 4.3%, 체중·체형 관리 후 17.6%, 헤어관리 후 11.2%, 미용 성형 후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같은 정의별 분류의 결과를 비교하니 각 영역에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와의 유의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구체적 건강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여 구성 비율을 살펴서 다시 확인한 결과, 화장과 피부관리의 영역에서는 미용행태로 인한 건강위해의 비율이 심각한 경우는 많지 않

았다.

<표 4>는 미용행태에 따른 건강위해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건강위해 I'은 화장 이후에 67.4%(4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성형 이후에 1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위해 II'는 체중·체형관리 이후에 17.6%(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피부관리 이후에 4.3%(17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화장 시 사용하는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을 때 흔히 가벼운 부작용이 발생하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곧 사라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피부관리의 경우는 집에서 하는 수준에서는 고기능성 제품이나 기구로 인한 자극이 별로 없으나, 피부과나 관리실에서는 이를 접촉하며, 때로 기능성 제품의 지나친 화학적 자극 외에 마사지 등의 물리적 자극이 원인이 되어 이상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여 건강위해가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체중·체형관리의 경우는 잘못된 식이요법이나 약물복용 및 운동으로 인해 중증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미용성형의 경우 건강위해의 가능성은 많이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알려진 방법으로 전문의사에 의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건강위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미용행태별 건강위해 수준의 분포

미용행태	건강위해 I *	건강위해 II **	명(%)
화장 (N=628)	423 (67.4)	52 (8.3)	
피부관리 (N=397)	138 (34.8)	17 (4.3)	
체중·체형관리 (N=256)	136 (53.1)	45 (17.6)	
헤어관리 (N=654)	347 (53.1)	73 (11.2)	
미용성형 (N=111)	15 (13.5)	8 (7.2)	

* 건강위해 I : 모든 건강위해

** 건강위해 II : 일시적 부작용을 제외한 장기적, 전신적, 영구적 건강위해

2) 미용행태와 건강위해 관련 요인

화장으로 인한 건강위해는 '건강위해 II'가 전체색조화장(9.3%)과 외제화장품(11.6%)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화장 빈도와 건강위해의 관계에서는 건강위해 II영역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1, P<.05$)(표 6).

피부관리 장소에 따른 건강위해를 살펴보면 '건강위해 I'은 집보다 피부관리업소에서 42.6%(23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위해 II'도 집보다 피부관리업소에서 16.4%(9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관리 장소와 건강위해의 관계 분석에서 건강위해II 영역에서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chi^2=22.478, P<.001$)(표 7). 피부

<표 5> 화장방법, 선호화장품과 건강위해

		명(%)	
		건강위해(I)	건강위해(II)
화장방법	기초화장	176 (69.3)	21 (8.3)
	부분색조화장	117 (62.2)	11 (5.9)
	전체색조화장	97 (69.3)	13 (9.3)
		$\chi^2=2.866$	$\chi^2=1.508$
선호화장품	가리지 않는다	110 (66.7)	4 (2.4)
	국산 화장품	134 (64.7)	17 (8.2)
	외제 화장품	88 (63.8)	16 (11.6)
		$\chi^2=0.298$	$\chi^2=9.866$

<표 6> 화장빈도와 건강위해

		N(명)	Mean ± S.D	t
건강위해(I)	유	421	2.55 ± .62	2.35
	무	204	2.42 ± .66	
건강위해(II)	유	51	2.69 ± .55	2.11*
	무	574	2.49 ± .64	

* P<.05

<표 7> 피부관리 장소와 건강위해

		명 (%)	
		건강위해(I)	건강위해(II)
피부관리 장소	집	114 (33.7)	8 (2.4)
	업소	23 (42.6)	9 (16.4)
		$\chi^2=1.609$	$\chi^2=22.478^{***}$

*** P<.001

<표 8> 피부관리 빈도와 건강위해

		N(명)	Mean±S.D	t
건강위해(I)	유	129	3.02±.92	.87
	무	245	2.94±.94	
건강위해(II)	유	17	3.41±.80	2.00*
	무	359	2.94±.93	

* P<.05

<표 9> 체중, 체형관리 빈도와 건강위해

		N(명)	$\bar{Y} \pm S.D$	t
건강위해(I)	유	114	3.02±.92	0.02
	무	96	2.94±.94	
건강위해(II)	유	37	2.97±1.12	2.10**
	무	173	2.95±1.03	

** P<.01

관리 빈도와 건강위해의 관계 분석에서도 건강위해 II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t=2.00, P<.05)(표 8).

체중·체형관리 빈도와 건강위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9).

헤어관리의 빈도, 방법과 건강위해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미용성형의 방법과 건강위해의 관련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20대 여성의 미용행태별 건강위해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연구가 아직 제한적인 이 분야의 보건교육의 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A 여자대학

교와 B 남녀공학대학교에서 여대생 450명씩을 각각 선정하여 총 900명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설문조사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900부 중 834부로 회수율은 92.7% 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한 813부(90.3%)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 Package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결과 미용행태는 화장을 하는 사람이 78.6%, 피부관리가 49.5%, 체중·체형관리가 32.0%, 헤어관리가 81.5%, 미용성형이 14.9% 였다.

미용행태별 건강위해는 '건강위해 I'은 화장 이후에 67.4%(4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성형 이후에 1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위해 II'는 체중·체형관리 이후에 17.6%(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피부관리 이후에

4.3%(17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장 빈도와 건강위해의 관계에서는 건강위해 II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1$, $P<.05$). 피부관리 장소에 따른 건강위해를 살펴보면 '건강위해 I'은 집보다는 피부관리업소에서 42.6%(23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위해 II'도 집보다는 피부관리업소에서 16.4%(9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관리 장소와 건강위해의 관계 분석에서 건강위해 II 영역에서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chi^2=22.478$, $P<.001$). 피부관리 빈도와 건강위해의 관계 분석에서도 건강위해 II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t=2.00$, $P<.05$). 체중·체형관리 빈도와 건강위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헤어관리, 미용성형의 빈도, 방법과 건강위해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녀공학과 여대와 같이 연구 대상 집단의 구성원에 의식할만한 이성 집단이 있는가와, 구성원이 동성으로만 구성되는가에 따라 화장과 헤어관리의 행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대의 젊은 여성의 미용 행태 중 화장과 헤어관리는 이성을 의식할 때 더 증가함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국내 미용 연구 중 최초로 미용행태 전 분야를 개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화장, 피부관리, 체중관리를 자주 하는 것은 건강 위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나친 피부관리와 체중·체형관리의 위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이와 관련한 미용 분야의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20대 여성의 전반적 미용 행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건강위해 실태 파악으로 보건교육의 한 자료가 마련된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용행태는 건강위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할 때 건강위해의 정의나 질문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연구에는 이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기준이나 척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용에 관심이 많고 시행 정도가 높은 젊은 여성에 대한 미용 관련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숙 : 직업성 피부염에 관한 보건학적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1997
- 강수경 : 피부관리실의 실태 및 향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미용학회지, 1996
- 고혜정 : 20대 여대생의 외제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 적합성 비교 연구, 미용학회지, 1996
- 곽형심 : 여성의 모발 미용에 대한 의식 행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8
- 구자명, 이명희 : 남,녀 중학생의 외모 만족도와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 학회지 100 : 153-163, 1994
- 권대순 : 한국미용문화의 변천과 소비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1999
- 길미경 : 비만관련 습관 및 비만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9
- 김복희, 남철현 :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5(1) : 1-30, 1998

김복희 :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 요인, 박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대학원, 보건학과, 1998

김봉인 :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1998

김애리 : 비만 학생과 정상체중 학생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우울에 대한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2

김영효 : 성인의 자기조절기능, 비만도,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1998

김은숙 : 미용학원 수강생의 모발 미용 의식행태와 미용실 위생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9

김진숙 :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8

변금순 : 미용 성형 수술이 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7

송경아 : 일부 여성의 생활행태가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공중보건학과, 1997

신지영 : 일부 성인 여성의 체중 조절 행태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보건교육과, 1999

심재용 : 비만 청소년의 정신 사회학적 특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1997

이기룡, 신명자 : Make-Up의 변천과 사회적 영향, 『대전보건대학 논문집』. 20 : 365-383, 1999

최영경 :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의류직물학과, 1997

한설아 : 여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의류직물학과, 1998

M.Hernandez, M.-M.Mercier-Fresnel : DOSSIER DE L'ESTHETIQUE COSMETIQUE, Paris : MALOINE, 1989

M.L. Blateyron, N. Bujoc : VIE Social et Professionnelle, Paris : FOUCHER, 1996

LES NOUVELLE ESTHETIQUE : 'UV', AVRIL P.48-51,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VIEILLISSEMENT', AVRIL. P.76-79,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STRESS', AVRIL P.98-103,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CELULITE', MAI P.24-27,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SOLEIL', JUIN P.42-49,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CELULITE', JUIN P.102-10,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BRONZAGE', OCTOBRE P.48-51, 1997

LES NOUVELLE ESTHETIQUE : 'HYGIENE', OCTOBRE P60-63, 1997

<ABSTRACT>

A Research on the Health Hazards by the Patterns of Beauty Care

Myung-Za Shin

Department of Skin Care & Beauty Art, T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women involved in social activities, beauty industry has flourished. More women than ever before are concerned about make-up, hair care, skin care, and weight control, etc. With the success and commercialization of beauty industry, unconfirmed beauty care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market. However, the health hazard from diverse beauty care services has not been systematically addresse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wo purposes: 1) to examine the utilization pattern of diverse beauty care services; and 2) to examine the health hazard from beauty care services.

For this study, two majo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rea were selected. While 450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from one women's university, the other 450 were from mixed university. Using survey questionnaire, we interviewed with 900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the beauty care patterns, makeup accounted for 78.6%, Skin care 49.5%, weight/body control 32.0%, hair care 81.5%, and cosmetic operation 14.9%, indicating significant high rates of makeup($\chi^2=9.215$, $p=0.002$) and hair care($\chi^2=4.435$, $p=0.035$) at both mixed and women's universities.

The health hazard was measured using four questions. The past studies have not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methodological issue of how to ask health hazard. Depending on how to ask health hazard,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reporting health problems varied. W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whether or not they had suffered health problems for a short period, over 60% of respondents reported health problems; when they were asked in other ways-1) whether or not they had suffered health problems for a long period, 2) whether or not they had suffered whole body problems, 3) whether or not they had permanent traces on skin due to beauty care activities-,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reporting health problems dropped substantially to less than 10%. This finding indicates the importance of 'words' used in questions.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blems and utilization of beauty care services were examined, using χ^2 test or t test. We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blem and beauty care.

Key Words : Beauty care, health hazard